

#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명의 주님의 사도가 한국을 찾았다. 스코트 장로가 한국을 다녀간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한국을 방문해 성도들을 만났다. 베드나 장로는 아내인 베드나 자매와 함께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 지역을 돌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스코트 장로의 말씀이 회원 모두의 마음속에 단비처럼 스며들면 베드나 장로의 말씀은 한 줄기 소나기가 되어 마음속에 품은 고민이나 근심을 씻어 내렸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가 소개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베드나 장로. 그가 다녀간 뒤의 한국은 소나기 지나간 하늘이 그렇듯 맑고 청명했다.

## “가장 중요한 것들을 뒤로하지 마십시오” 대구 지역 노변의 모임

지난 8월 20일 저녁,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베드나 장로와 베드나 자매는 설 틈 없이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부산 김해 공항에서 베드나 장로 부부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에번즈 회장 부부, 그리고 최윤환 장로 부부를 기다리던 부산 성도들은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급기야 연착이라는 알림이 뜰 때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베드나 장로를 태우게 기다리는 마음은 다음 날 선교부 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부산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노변의 모임이 계획된 대구와 울산 지역



왼쪽부터 배덕수 대구 스테이크 회장, 제닝스 부산 선교부 회장, 에번즈 회장, 베드나 장로, 최윤환 장로, 강형구 울산 지방부 회장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베드나 장로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읽은 듯, 21일에 열렸던 ‘대구 스테이크와 울산 지방부 합동 노변의 모임’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첫인사를 대신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어서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을 향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교리를 배워보시기를 권유합니다.”라고 교회를 소개했다. 베드나 장로의 말씀은 회원들을 향한 경교로 이어졌다. “경교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댄 베드나 장로는 수많은 회생을 치르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한 초기 회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 중 일부는 박해에서 벗어나 번성하면서부터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했다. 베드나 장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좋은 차와 넓은 집처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가족 기도 시간과 경전 읽는 시간을 희생하는 오늘날의 세태에 경교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족 경전 읽기와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을 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뒤로하지 마십시오.”

대구 지역과 울산 지역의 모든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베드나 장로의 방한이 결정된 뒤부터 면밀하게 준비되었다. 특히 대구와 울산의 특성상 먼 거리에 떨어진 회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임 시간 전부터 수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님의 사도를 향한 신앙을 보였다.

##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21일 대구에서의 모임 후 서울로 향한 베드나 장로 부부는 22일 하루 동안 서울 선교부와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 합동 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23일과 24일, 서울 동대문

베드나 장로는 회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왼쪽 사진: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에서의 베드나 장로.>  
베드나 장로는 아이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오른쪽 사진: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단과 베드나 장로.>



스테이크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모임이 열린 동대문 와드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건립된 집회소 건물이다. 한국의 초기 성도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아 올린 이 건물은 주위의 다른 옛날식 건물들이 재개발의 바람에 허물어질 때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오랜 세월만큼 동대문 와드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회원의 수도 무척 많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희 장로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최윤희 장로는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신권 모임에서 “37년 전에 개종한 후 처음으로 연단에 섰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밝히며 지난날을 추억했다. 최 장로는 또한 배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며 “성신을 동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며 “베드나 장로님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신권 모임은 형제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베드나 장로와 최윤희 장로는 그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주며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진 토요일 저녁 모임은 무척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베드나 자매는 우리의 전통인 돌잔치 상을 언급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이며 “연필은 가슴에 새겨진 계명이고, 쌀은 영적·물질적으로 필요한 양식이고, 책은 경전, 그리고 실타래는 우리와 하나님을 엮는 성약, 마지막으로 돈은 현세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비유해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해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선 베드나 장로는 ‘가족을 강화함’이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베드나 장로는 “가족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게 된다면 가족은 압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거울이기에 우리의 잘못된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식일인 24일 아침은 구도자와 신회원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수의 구도자와 신회원이 모임에 참석했고, 베드나 장로와 최윤희 장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사랑을 표현했다. 뒤이어 열린 일요 총회는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합창단이 부른 ‘늘 함께 합소서’가 시작을 알렸다. 이 모임에서 베드나 장로는 속죄의 원리와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는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강화되기까지 합니다.”라고 말씀한 베드나 장로는 모사야서 24장 13절에서 15절을 인용하며 “네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한다는 말 속에는 짐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 짐을 진 사람들이 강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명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베드나 장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회원들을 향해 “이 스테이크는 오늘날 새로운 출발의 장소입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원들이 한국 교회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을 당부했다.

### “가장 좋은 질문은 영감에 찬 질문입니다” 베드나 장로님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모임

24일 오후에는 영등포 와드에서 ‘베드나 장로님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모임’이 있었다. 신축된 영등포 와드 집회소에서 열린 이 모임은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참석했다. 모임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찬 영등포 와드 예배실은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한 청소년들의 순수한 신앙과 열기가 가득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 모임에서도 질문과 대답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된 것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원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복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답은 성신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 영감에 찬 질문입니다.” 베드나

장로의 말이

끝나자  
좌중은 한  
순간



어린이들과 함께 한 베드나 장로 부부



맨 위쪽부터: 베드나 장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며 모임을 이끌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베드나 장로의 말씀을 경청했다.

모임은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모임에서 서울 남 스테이크와 서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이 합창을 했다.

조용해졌다. 특히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가 아닌 오직 청소년들의 질문만 원한다는 베드나 장로의 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청소년들의 손이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모임 시작 전만 해도 나른한 표정을 짓거나 옆자리 친구와 얘기하기 바빴던 청소년들의 자세와 표정 또한 변했다. 모임 후 베드나 장로가 사석에서 거듭 밝혔던 것처럼 질문의 수준도 높았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친구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부활 후의 상태나 선교 사업을 꼭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매우 다양했다. 그 중에는 ‘어떻게 하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나 데이트에 관련된 질문 등 청소년 특유의 순수한 질문도 있었다.

첫 번째 질문자였던 한 청년은 지혜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베드나 장로는 답변을 통해 “청남으로서, 그리고 신권 소유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형제님께 비밀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친구들은 이미 (지혜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형제님의 용기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기록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임에서 듣는 것을

기록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록이 연사의 말씀만을 적은 것이라면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면서 성신이 준 느낌에 집중해서 적으십시오.”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에도 베드나 장로는 훌륭한 가르침을 선사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름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책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 직책을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을 신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합당하게 사시고, 봉사하십시오.”

모임의 마지막에 베드나 장로는 청소년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가 바로 그 질문이었다. 청소년들의 답변은 실로 다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대답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혼자 어떤 일을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대답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자신을 와드 청년 회장이라고 밝힌 한 형제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모임을 통해) 그들이 우리 생각만큼 어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모임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베드나 장로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청소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제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말씀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베드나 장로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모임**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회원을 초대한 24일 저녁의 노년의 모임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산인해’였다. 청소년의 모임 때부터 빼곡했던 영등포 와드 예배실과 활동실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천 명이 훌쩍 넘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급기야 2층 각 교실마다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고, 교실에 들어가지 못해 화면으로도 베드나 장로를 볼 수 없었던 회원들은 복도 창문 너머로 시정하는 진풍경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어림잡아도 이천 명이 훌쩍 넘는 수였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향한 회원들의 열의는 이처럼 뜨거웠다.

노년의 모임 또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노년의 모임에서의 질문은 청소년들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실질적이었다. 그 중 주목을 끌었던 것은 “사도라는 호칭”에 대한 질문. 십이사도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한 형제의 질문에 베드나 장로는 사도는 하나의 직분이라고 가르치며 “그 용어는 굉장히 성스럽기 때문에 쉽게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신에 ‘장로’라고 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충실히 생활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던 한 형제의 질문도 많은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 질문은 베드나 장로의 지시에 따라 최윤희 장로가 먼저 답변을 했다. 최 장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라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권고를 표준으로 둘 때, 주님의 것을 우선시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베드나 장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는 원리를 먼저 설명한 뒤, “아프리카, 가나,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의 모든 회원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한국 문화라서 더욱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해외 왕국에서는 한국 문화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문화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며 직장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부름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여러 부름을 맡으면서 힘겹다고 말한 한 독신 자매에게 베드나 장로는 “우리는 결코 부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면 솔직하게 신권 지도자와 나누십시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베드나 장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싶다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저녁의 기도는 아침 기도 계속됩니다. 아멘이라고 한 순간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임의 마지막 즈음에 상호부조회 자매 한 명이 던진 질문은 이날 모임의 핵심이었다. 베드나 장로는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 곧바로 최윤희 장로의 아내인 구본경 자매를 연단으로 불렀다. 구본경 자매는 상호부조회 자매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 이해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라는 간증을 전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여러 악기에 비유하며 각자의 소리가 더해져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사랑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베드나 장로는 모임을 마무리하며 “질문과 답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이 우리의 교사입니다. 오늘 나왔던 질문과 답은 모두 성신의 인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라고 여러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말씀에 말씀은 ... 교훈에 교훈을 ...”**

한국에서 있었던 네 번의 모임 동안 베드나 장로가 가장 강조한 원리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는 것이었다. 베드나 장로는 이 원리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간증을 쌓을 때도, 회개의 과정을 겪을 때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주님의 사랑과 권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베드나 장로는 또한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말씀과 교훈들이 더해져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진정,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베드나 장로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대신 기쁨과 감동의 표정이 어렸다. 그 표정들을 향해 베드나 장로는 매 모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했다.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베드나 장로의 진심이 담긴 것임을 알기에 그가 한국에 머물렀던 며칠 동안 한국 성도들은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성신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으로 바뀌었다. ■

영등포 와드 헌납식

# 이토록 아름다운 건물

**지** 하철에서 내려 영등포 와드로 향하는 길은 전형적인 도시의 뒷안길이다. 높다란 건물이 아래를 내려다보는가 하면, 슬레이트 지붕의 키 작은 상점들도 고만고만하게 늘어진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포근하다. 헌납식이 열렸던 8월 16일에는 그 거리에 부슬비가 내렸다. 무더위는 여전했지만 내리는 비 때문인지 제법 가을의 정취가 느껴졌다. 운치 있는 거리와 새로 지어진 영등포 와드가 어떤 어울림을 보여줄지 거리를 걷는 내내 기대감이 차올랐다. 얼마쯤 걸었을까, 앞서 걷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곱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까만색 정전 가방을 든 모습이 척 보기도 교회 회원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를 쫓아 걸음을 재촉하니 어느새 골목 하나를 지나 넓은 거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영등포 와드가 있었다.

## 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집회소

영등포 와드가 자리 잡은 모습은 흑백 화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감이었다. 디귤자 모양의 건물 형태, 양쪽 현관 사이에 가로놓인 화단, 그리고 하늘과 어우러지며 솟아오른 첨탑. 천막으로 둘러친 넓은 공장 사이에서, 열기설기 지어진 회백색의 집들 사이에서 영등포 와드는 그렇게 장엄함을 뽐내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도 영등포 와드의 위엄을 가리지는 못했고, 먹구름 사이로 내리는 비도 영등포 와드의 아름다움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 앞에 선 모든 이들이, 교회 회원이건 지나가는 행인이건 할 것 없이 영등포 와드를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사람을 압도하고 질리게 만드는 세상 건물의 그것과는 달랐다. 따뜻하고 포근함 느낌, 건물에도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다면 영등포 와드는 한없이 큰마음을 가진 어머니처럼 보였다.

건물 내부는 소박함과 섬세함이 교차했다. 정면을 향한 둥근 채광창은 햇빛을 그러모아 살며시 복도를 밝혔고, 예배실의 은은한 간접 조명은 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화려한 색깔이나 장식이 없는 흰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걸어 고귀함을 뽐냈다. 화장실, 교실, 예배실, 활동실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예배실과 활동실을 포함해 총 수용 인원이 천 명을 넘는 영등포 와드는 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집회소다. 영등포 와드는 앞으로 지역의 합동 모임이나 특별 노년의 밤 등 여러 용도로 쓰일 계획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 와드를 찾을 것이고, 보다 많은 기적들이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일어날 것이다.

##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영등포 지역에서 첫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십 년도 더 전인 1967년의 일이다. 당시 선교사로 봉사했던 네 명의 장로가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일 학교를 연 것이 시작이었다. 1967년도 7월호 '성도의 빛'에는 6월 18일에 있었던 그 모임을 이렇게 소개했다. "1967년 6월 18일 첫 주일 학교를 가진 집회는 김명웅 형제 덕에서 모임을 갖고, 이 지역의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보다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의욕이 대단했다." 단 세 줄짜리 기사였지만 그 속에는 영등포 와드의 오늘날을 내다보는 혜안이 들어 있었다.

영등포 와드의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네 명의 선교사와 몇 명의 구도자로 시작한 첫 모임 이후 이듬해인 1968년에 영등포 지부가 조직되었다. 그 후 오랜 세월동안 영등포 지역에 깃든 주님의 복음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여전히 지부로서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무리익은 신앙과 간증만은 어느 와드보다도 뜨겁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2002년 5월,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서울 서 스테이크가 남 스테이크로 개명을



왼쪽 사진부터: 임대 건물 시절의 영등포 와드.

새로 건립된 영등포 와드.

건물은 바뀌었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던 영등포 와드의 회원들은 그대로다.

하면서 영등포 지부 또한 신길 와드와 합쳐 영등포 와드로 재조직 된 것이다. 회원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영등포 와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지역 센터로 쓰겠다는 결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부지 계약은 2003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 5년의 기간을 거쳐 새로운 영등포 와드 건물이 탄생했다. 40여 년 전,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제 영등포 와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건물로 우뚝 섰다.

### 그 옛날의 천막

헌납식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이 감리하고 최윤희 장로, 이용환 장로, 북아시아 지역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돈 리치 형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헌납식 시작 전부터 영등포 와드는 축제 분위기였다. 내리는 비가 축제의 전주곡처럼 들릴 정도로 영등포 와드 회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안내라고 적힌 어깨끈을 매고 주차장과 건물을 분주하게 오가던 청소년들도, 음식을 준비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피곤한 기색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에 바빴다. 헌납식 또한 즐거운 가운데 영을 고양시키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졌다. 돈 리치 형제는 “아름다운 건물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뒤, 이 건물은 회원들의 십일조로 지어졌음을 강조했다. 돈 리치 형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등포 와드의 벽돌 하나하나, 천장에 달린 전등

하나하나가 더욱 각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다. 리치 형제는 이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관리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최윤희 장로는 예배실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를 천천히 둘러본 후 “이 건물은 한국 성도들이 굳건히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했다. 또한 최 장로는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이 건물로 표현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감동적인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에번즈 회장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란 한국에 신앙의 기초가 놓였을 때 천막 집회소에서 예배를 보며 신앙을 키웠던 초기 회원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에번즈 회장은 오랜 회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애정과 감사를 표현했다. 이어서 “여러분의 충실함으로 천막에서 예배를 보던 시대를 넘어 이토록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에서 모임 하던 그 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의 천막도 주님의 예배를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씀을 덧붙였다. 순간, 참석한 회원들 모두는 숙연해졌다. 에번즈 회장의 말씀 속에는 몇 십 년 전의 천막이건, 지금처럼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건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에번즈 회장은

끝으로 복음의 참됨을 간증한 후 헌납 기도를 했다.

이제 영등포 와드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아니, 한국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그때로부터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예배드린 결과가 바로 지금의 영등포 와드다. 이제 영등포 와드는 베드나 장로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합의 장소”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한국 땅이 시온이 되도록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다. ■



헌납식을 마치고 영등포 와드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걷히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조경(전임: Williams, C. Tolman)

### 광주 스테이크

송정 와드 감독: 김규조(전임: 안성현)

###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감독: 윤영문(전임: 차대환)

###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감독: 남경현(전임: 황중원)

울전 와드 감독: 황재상(전임: 성용현)



## 지역 단신

### 광주 스테이크 <정유진 자매>

하계 청소년 대회-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곡성 청소년 야영장에서 치러진 2박 3일간의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는 대회 내내 청소년들이 '협동'이라는 주제 아래 생활 하도록 도왔다.

###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하계 청소년 대회-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소재 숲속 학교와 펜션에서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60명과 고문 26명이 5개 대대로 나누어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를 배우기 위하여 약 80킬로미터를 행군하였다.

###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하계 청소년 대회-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광양시 다압면 금천 계곡에서 약 30여명의 청소년과 고문들이 함께 모였다. 첫날은 소나기가 내렸고, 체육 대회와 산행이 있었던 둘째 날에는 무더웠으나 청소년들은 모든 모임에 일사분란하게 따르는 순종심을 보였다.

### 인천 스테이크 <백봉옥 기자>

하계 청소년 대회-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설악산에서 교리와 성약 123편 17절을 주제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예년과 달리 설악산 대청봉 산행을 주 행사로 2박 3일을 보냈다. 해발 1,700여 미터의 대청봉을 오르며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고난을 극복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

### 청주 스테이크 <김윤희 자매>

가족 대회-2008년 8월 15일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우리 가족은 영원해"라는 행복한 주제로 흥덕 와드에서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가족치료 상담사로서 활동하는 윤애란 자매의 리더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사례와 실물을 들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9기 14명



김가람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서울 선교부



이현경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선교부



김민정 자매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서울 선교부



정기현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 2와드  
부산 선교부



박민정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와드  
부산 선교부



정준우 장로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부산 선교부



유효상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조헌재 장로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세리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대전 선교부



채종석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부산 선교부



이소영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부산 선교부



최윤조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대전 선교부



이영빈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한기석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대전 선교부